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피해구역 일부 축소될 듯

지난 11월 17일 우리나라 최대의 폐기물위생매립지인 '수도권매립지' 로 인해 주변지역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 두 곳의 공동조사 결과가 나와,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참여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조사결과가 연간 13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금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종전에 주어졌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영향권역은 지난 1996년 제1매립장을 매립하고 있을 당시 조사를 통해 설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제2매립장 사용 이후 매립지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변함에 따라 영향권역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선정의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황용우 교수)와 매립지관리공사 추천의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이무춘 교수)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2매립장에 의한 실질적인 영향범위는 현재 매립지부지경계로부터 3~5km에서 폐촉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2km 이내에도 훨씬 못 미치는 0.5km이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영향권을 조정할 경우 종전 44개 통리에서 3개 통리로, 지원대상 세대수도 종전 8천8백세대에서 640세대로 각각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10월부터 실시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제1매립장 공원화 사업 등 '수도권 매립지 드림파크 조성사업' 과 폐기물 반입시간대 개선(24시간 반입 → 주간반입), 매립지법의 선진화 등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평가이다.

한편, 주변지역의 3개 초등교생(단봉, 백석, 학운) 595명에 대한 건강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천

식을 경험한 학생이 각각 18.6%, 30.7%, 11.5%이고, 알러지 비염을 경험한 학생이 각각 59.2%, 65.3%, 44.2%, 아토피피부염을 경험한 초등학생이 28%, 42.6%, 19.6%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매립지에 가장 근접한 단봉초등생들에 비해 영향권밖의 백석초등생들의 천식, 알러지비염, 아토피피부염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매립장과 주변지역 초등생들의 건강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풀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공사측은 "실제 초등학생들의 천식 및 알러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립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매립지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 및 난개발에 의해 산재되어 있는 5,000여개의 공장이 주요인이다" 라는 설명이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매립지로 인한 환경상 피해의식은 매립지의 환경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는 이번 조사에 있어 주민대표기관인 주민지원협의회와 그 결과에 대해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주민의 직접참여는 물론, 5회 이상의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밝히고,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영향권을 설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총회 한국 개최 결정

환경부는 150여개국 정부대표, 습지관련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관계자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월 8일~15일간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된 제9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참가 정부대표의 만장일치로 2008년 개최예정인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중인 대표단은 지난 11월 15일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개최계획 발표시 우리나라 습지보전정책과 경상남도 창원시의 우수한 개최여건 등을 설명하였고, 참가국들은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개최제안을 수락하였다.



대규모 국제환경 회의의 개최 준비를 통해 국내 습지정책의 발전, 국제환경논의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 국가 이미지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자생나무에 이름표 달아주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조흥은행(은행장 최동수) 협찬으로 치악산, 설악산, 가야산, 덕유산, 북한산, 변산반도 등 6개 국립공원 내 자생 수목

정부대표단은 개최 결정전 회의기간동안 회의장내에 우리나라 습지정책 및 개최지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부스 설치, 중국, 일본, 이란 등 아시아지역 국가의지지 당부, 아프리카 지역회의(11월 12)에 참가하여 개최계획 소개, 환경부장관 주최 리셉션을 개최(11월 14일, 400여명 참가)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총회의 개최지 결정후 개최수락 연설을 통해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습지보전 정책을 한 단계 도약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및 랍사 사무국 등 습지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총회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당사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총회 폐막후 당일 현지에서 이재용 환경부 장관과 김태호 경남지사는 우리나라 회의 참가자, 랍사협약 사무국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국제 NGO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최준비를 위한 환경부와 경남도간의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등 개최준비의 첫발을 내딛었다.(환경부와 경남도의 양해각서에는 개최방향, 양기관간의 협조범위, 기획단 구성, 예산배분 등의 내용을 포함.)

환경부는 금번 랍사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는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습지와 관련된

1,600여 그루에 수목을 설명하는 표찰을 부착하고, 지난 11월 5일 공단 및 조흥은행 임직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악산국립공원에서 수목표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부착하게 된 수목표찰은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워 감탄하면서도 이름을 몰라 아쉬워하던 탐방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꽃이 피는 시기, 열매가 맺는 시기 등이 설명되어 있어 국립공원 내 수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단순한 등산만이 아닌 자연에 대하여 보고·배우고·느끼는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고자 1992년부터 국립공원 내 자생하고 있는 수목에 표찰 달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조흥은행에

서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 수목묘찰 20,000여개(약 5억원)를 기증하여 많은 탐방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년 폐기물다량발생
사업장 폐기물감량 현황 통계」 발간**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기업에 폐기물 감량 추진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다량발생 사업장의 폐기물감량현황』 통계를 발간했다. 전년도에는 지정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200톤/년)만 조사 대상이었으나, 이번 통계조사는 일반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1,000톤/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폐기물량은 42.7kg으로 전년대비 15.5%(7.7kg/톤) 감소하였고, 매출액 10억 원당 발생된 폐기물량은 62.6톤으로 전년대비 4.7%(3.1톤/10억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중 85.1%가 재활용되어 전년(85.6%)과 비슷한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재활용량은 23%증가(15,677천톤 → 20,317천톤)했다. 업종별 감량실적을 살펴보면 제1차 금속산업(전체업체수의 19%) 업종이 전체 발생량의 68%를 차지하는 반면, 섬유제품제조업 등 9개 업종(전체업체수의 43%)은 폐기물 발생 점유율 3%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큰 격차를 보였다. 재활용률은 제1차 금속산업이 95.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이 90.8%, 전자제품제조업이 7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섬유제품제조업이 20.2%, 석유정제품제조업 34.3%,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이 51.6%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매출액이 큰 대기업일수록 높은 폐기물발생량 못지않게 재활용실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폐기물감량에 대한 인식전환 및 기술 및 자금제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 사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량화 정책 기반 조성과 사업장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현재 감량화종합정보 홈페이지(www.wastezero.or.kr)를 통해 사이버컨설팅, 국내외 폐기물감량 기술 및 기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감량화 추진사업장에는 시설자금 융자지원율, 폐기물감량 부진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지도와 함께 업종별 감량가이드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 운영

환경부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 처리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사이버상담실」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상담실은 지난 11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됐고 초기화면에서 바로 접속(waste.me.go.kr)이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며 폐기물의 적정관리체계와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규정에 대하여 담당자들의 실시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2005. 5. 29)이후 자주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사례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게재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폐기물처리업허가, 폐기물종류별 처리방법 등 자주한 질문 10,000여건을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목록화 함.) 또한 상담결과를 상담자의 핸드폰과 개인용컴퓨터로 알려 줌으로써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시스템을 고객 위주로 개선하게 된 것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질의가 다양하고 접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민원처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상담실은 초기화면과 환경부 배너에서 바로 접속되며, 공지사항·질문답변사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등이 자동 안내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이버상담실은 유사사례보기, 상담실, 관련 자료실로 구성되며 유사사례보기에는 폐기물의 정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4

개의 대분류와 11개의 중분류, 15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상담자가 대화형식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고 상담실은 일문일답식 답변형식으로 구성하여 상담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 및 E-Mail로 자동안내토록 하였으며 관련 자료실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련 주요 법령, 환경용어사전, 환경상식, 주요 추진 업무내용, 통계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선박 기름오염방지 설비 중점 점검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5차 아·태 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Tokyo MOU Committee)의 결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항만국통제시(PSC) 선박의 기름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운항 중 발생하는 폐유 등에 의한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아·태지역과 유럽지역이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내년 1월중 우리나라 선사를 대상으로 유럽 및 아·태지역의 기름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중점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07년에는 미국, 아·태지역, 유럽지역, 남미지역 및 인도양 지역이 합동으로 선박안전관리체제(ISM)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운항통제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 중점점검제도(CIC)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취약분야를 선택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지난 2003년 벌크선의 구조적 안정성, 지난해 선박보

안 분야, 그리고 올해 선박운항요건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는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이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운항통제를 위한 주변국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4년 설립한 항만국통제에 관한 지역협력체이다.

산업자원부, 국내지속가능산업 도입 발판 마련

국내에 지속가능산업 도입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에서는 지난 11월 11일 구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산업계, 학계 및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화학산업 구축 심포지움』이 개최했다.

지속가능산업이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는 산업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특별히 일본의 지속가능화학네트워크 사무총장인 카쓰오 마쯔야마 박사(Dr. Kazuo Matsuyama, JCII)로부터 '일본의 지속가능 화학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고, 국내 지속가능화학산업 전문가로 인하대 박상언 교수, (주)씨트리의 김완주 회장, 서울대 이윤우 교수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김기주 박사 등이 초청강연을 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하여 국내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녹색화학(Green Chemistry)'에 기초한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외국의 추진전략을 파악하고 국내 정책적 대책을 위한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된다. ◀

「월간 '환경기술인」」 홍보광고 안내

- 광고 SIZE: 4×6 배판
- 문의전화: (02)852-2291
- 담당: 김기섭 광고팀장(019-436-3621)